『신앙과 학문』, 제 12권 3호 (2007. 12), 125-151.

신약성경에 나타난 복음과 문화와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

문용식(총신대학교 교양교직과 교수)

논문초록

이 논문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복음과 문화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를 밝히기 위한 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신약성경을 대상으로 삼아 문화가 선포된 복음의 형태에 끼친 영향을 밝히고, 복음이 문화에 미친 영향을 조명한 것이다. 이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신약성경의 태도에 대하여 천착한 것이다.

논의한 결과, 문화가 선포된 복음의 형태에 미친 영향이 다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역으로 복음이 문화에 강렬한 도전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복음과 문화가 접맥될 때, 복음이 문화에 강렬한 도전을 주어 문화변혁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복음을 핍박하거나 빼거나 더하는 혼합주의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혼합주의가 나타날 경우, 사도는 성도들에게 강렬한 신학적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주적 통치자로 확장함으로써 자연과 역사와 인간을 하나님의 새 창조의 대상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에서 문화적 가치에 대한 태도가 드러났다. 즉 신약성경은 구속의 역사와 문화의 역사가 함께 가고 있는데, 문화의 역사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창작 작업에 심오한 동기를 부여한다.

주제어 : 신약성경, 복음, 문화, 계시, 문화의 역사, 무오류, 혼합주의, 문화변혁, 새 창조

2007년 10월15일 접수; 2007년 12월7일 수정; 2007년 12월15일 게재 확정

Ⅰ. **서론**
Ⅱ.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
Ⅲ. **문화적 가치에 대한 신약성경의 태도**
Ⅳ. **결론**

Ⅰ. 서론

본고는 신약성경에 나타난 복음과 문화에 관한 검토이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문화적 특질은 이미 발표한 바 있으므로(문용식, 2004) 신약성경에 나타난 복음과 문화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아울러 문화적 가치에 대한 성경적 태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복음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주어진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라는 문화적 매개수단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계시의 내용과 그것이 표현된 문화적 성격 내지 형식을 분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문화적 성격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선학들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문화라는 용어가 신약성경에 없지만 그간 여러 방면에서 연구 성과를 제출하였다. 우선 신약성서 배경사(Lohse, 2003)나 신약성경의 사회문화사(Bell, 2005; Jeremias, 1993)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다 직접적으로 성경과 문화(Kraft, 1979; Legrand, 2001; Jordan, 2002), 기독교와 문화(Niebuhr, 1998)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성경에 토대를 둔 복음과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미미하여(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편. 1991) 검토를 요한다.

본고에서는 하나님께서 희미한 안개 속에서 복음을 계시하거나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속으로 내려오셔서, 문화로 계시하셨다는 선학들의 연구를 토대로(Kraft, 1979; Marshall, 1991) 초문화적 진리가 문화와

어떤 길항관계 내지 상관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가 쌍방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문화적 가치에 대한 신약성경의 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렇게 신약성경에 나타난 초문화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검토하다 보면, 복음의 상황화 문제 내지 특정 문화에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본고의 논의가 다문화적인 상황에 처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II.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

복음과 문화의 관계는 복잡한 문제이다.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고 진전되는 동안 기독교와 타문화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이 항상 있어 왔다.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문제가 더욱 심각한 듯하다. 여러 문제들 가운데, 교회는 복음전도와 선교현장에서 조우하는 낯선 문화 내지 다문화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복음이 들어가서 낯선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후 개척교회는 그 문화에 기독교 메시지를 왜곡됨이 없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복음과 문화의 상관성에서 야기된 것으로 교회가 직면한 긴급한 문제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답변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절실한 답변을, 문화가 선포된 복음의 형태에 끼친 영향과 복음이 문화에 미친 영향으로 나누어, 복음과 문화의 상관성을 신약 성경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를 논할 때, 마치 두 가지 별개의 것이 서로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을 자문해 보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 문화가 선포된 복음의 형태에 미친 영향

복음의 핵심인 성육신은 초자연적인 것이 인간의 문화에 침투한 것으로 볼 수 있다(Lakin, 2000: 175). 여기에 복음의 목적이 드러나는 바, 성육신은 인간 문화 속의 자기 계시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다. 그러나 인간 문화란 인간 사회가 집단생활에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할 때(Newbigin, 2005: 345), 그것은 죄로 오염되어 있다. 때문에 인간은 선포된 복음의 증거를 무시하거나 복음의 권위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또 인간의 문화란 생활에서 신을 섬기는 외면화된 종교행위라고 보는 한 정의를 차용한다면, 문화가 복음을 위협하는 것은 어쩌면 더욱 당연한지도 모른다. 신약성경을 보면 이 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요 5:1), 예루살렘에 본거지를 둔 유대관원들이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Boice, 1995: 19) 있음을 통해 쉽게 확인된다.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선포한 복음을 큰 위험요인으로 생각하며 거부반응을 보였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준수하고 있는 관습적인 종교문화와 대치된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주변문화의 성격이나 그 문화적 성격을 자신이 주창하는 신앙 원리에 입각하여 비판하였으며, 이 신앙은 생명 없는 바리새파적 율법주의 생활방식에 대한 단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율법에 사람의 규례를 첨가하여 가장 악한 형태의 율법주의로 떨어뜨리자, 율법의 참뜻을 밝히셔서 그들의 종교적 허위성을 날카롭게 폭로하시는 한편 이들을 "위선자들"(외식하는 자들; 막 7:6)이라고 비난하셨다(박희석, 2002:521-574).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반 틸(Vantil)이 "문화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으며, 문화를 중립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Vantil, 1984: 295)라고 말한 것은 적확한 해석이다.

특정문화에 의해 복음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특정 문화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요한복음 1장과 4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와 다른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 갈릴리 사람들, 심지어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의 복음에 호의적이었던 이들이 있었던 점이 이를 입증한다. 우리는 일부 기득권층이 복음에 적대적이라고 해서 그 문화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악한 존재로 보고 그 민족이나 지역 전체를 적대시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행동을 유대인 전체로 확대하여, 그들을 적대시하여 왔던 과거의 역사적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Hays, 2002: 663).

신약성경을 보면, 복음이 전파된 후에 토착문화가 선포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양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특정문화에 맞는 상황적 적합성을 고려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중문화적 소양을 활용함으로써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였다. 즉 바울은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거나 신앙 공동체에 교훈을 전할 때 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관계에 기인한 상황화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김경진, 2003: 192-193). 이러한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복음은 토착문화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변질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울이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아주 세심하게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한 복음이 아주 빨리 변질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울은 복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상황적 적합성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가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복음이 새로운 토양에 뿌리내리고 있는 상황을 세밀하게 관찰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제 문화가 복음을 변질시킨 정황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 살펴보자.

첫째, 고린도 교회는 열광주의자(enthusiasm)들의 반율법주의(antinomi-
-nalism)의 영향을 받아 복음이 변질되었다. 이들은 영과 물질(육)을 엄격하게 가르는 헬라적 이원론에 젖어서 자신들을 육신의 제약에서 벗어난 영적인 존재로 보았기(고전 3:1)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이 벌써 하늘의 구원을 얻었으므로, 몸으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여겼다. 이들은 이러한 헬라 문화의 영향 때문에 이방인 시절의 문란한 성 생활로 다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문란한 이방인보다 더 심하게 방탕한 짓을 하였다(고전 5:1-11;6:12). 더 심한 것은,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의 권위를 무너뜨린 한 대표적인 징표이다(고전 11:21).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복음이 변질되었다.

둘째, 열광주의자들과 반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극단의 금욕주의를 택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육은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에 얽매이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구호를 내세우고 결혼 거부의 길을 택하였다(7장).

셋째, 고린도 교회에는 헬라 철학의 주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복음을 일종의 세상 지혜로, 사도들을 지혜의 선생으로 오해하는 등, 서로의 지혜를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상에서 문화가 복음을 변질시킨 구체적 이유를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어 검토해 보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복음을 자신들의 헬라적 이원론적 사고로 이해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것은 문화가 복음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코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위와 같이 복음이 변질된 상태에서, 바울은 이러한 혼합주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도 보내고 동역자도 보내며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혹독하게 비판을 가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는 가운데, 교차문화를 사용하여 변증을 일관되게 시도한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상황화의 접근에 능한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교차문화를 사용하되 복음의 진정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바울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당시 헬라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문학 양식인 편지 양식을 따르되, 그 양식에 기독교 신앙을 반영하여 확대한다(김세윤, 2007: 33). 즉 바울은 헬라 언어인 로고스와 반문화인 십자가를 연계시켜 복음을 변증하는 가운데 바른 진리와 복음의 우위성을 논증한다.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가 혼합주의를 거쳐 이교주의에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가 혼합된 가운데, 거기에 서로 다른 형태의 영지주의가 결합되어 기독교 공동체는 접신주의적인 비밀집회소로 전락할 위험에 직면할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바울은 이단들과 논쟁하면서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휘를 받아들여 확장하였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사용한 몇몇 표현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 한 예만 들면, 바울은 유대적 영지주의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충만'이란 단어에 신성이라는 말을 더하여 '신성의 모든 충만'(골 2:9)이라고 표현하여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이는 골로새 이단이 그리스도께서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보다 신성이 적은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하여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견해를 반박한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영지주의자들의 개념을 활용하여 더욱 심오하게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예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 기존 문화 범주를 고쳐서 재표현함으로 더욱 풍요로운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사역 현장에서 만났던 다양한 문화적 관계의 새로운 양상에 직면하여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기독교 진리를 이교도의 범주를 활용하여 표현한 대표적인 한 예인 아레오바고(Areopagus)의 연설을 하나 더 살펴보자.

아레오바고 연설은 바울이 제2차 세계 선교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를 떠나

고린도로 가는 길에 아테네에 들러서 그곳에 있는 에피큐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행한 것이다. 바울은 희랍인 지성인들 앞에서 사도행전 17장 28절의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있으니라"와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를 인용한다. 이것은 이교도 시인들의 시인 바, 바울은 기독교와 주변 문화의 접촉점(a connecting point)을 찾아 거기서부터 대화를 풀어가려고 이것을 사용하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바꾸어 이것을 재 표현하였다. 아레오바고 연설에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청중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바울은 고대 수사학 양식인 변호 연설을 사용하였으며,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독자들에게 호기심과 질문을 불러일으켜서 그들 스스로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수사학적 기법(Sanders, 1993: 13-16)을 활용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위에서 우리는 사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어들과 개념들을 변화시켜 그 의미를 재정의 하든지(redefined), 의미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 논의를 보강하면, 에클레시아(ekklesia)는 '완벽한 시민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합의한 헬라 도시의 합법적 모임'을 뜻하였고, 관습적으로 '보냄 받은 사자에 의해 함께 소환되고 불림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처음 지역적 의미에서(고전1:2),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명확한 지칭으로 변화되고 보편적 교회로 여겨지면서(고전10:32), 후에는 헬라와 로마의 세계 전반에 걸쳐서 일어났던 '가정 교회들 가운데 하나'(고전 16:19)를 의미하게 되었다(Kraft, 1979: 569).

또 성경에 있는 옛 범주를 가지고, 특정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을 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복음의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도록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 맞게 새로운 이해의 범주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한 예를 들면 요한이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설명한 것이나, "인자"(Son of Man) 같은 호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주"(Lord)와 같은 호칭을 더 자주 사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인자라는 용어는 유대권 밖의 세상에서 사용한 용례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의의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인자"라는 칭호를 다른 문화에 번역할 때 의미의 변이(shift)를 일으켜 새로운 의미로 해석될 경우에는 그 문화에 맞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인자'(人子)라는 칭호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자신을 가리키는 소위 자아칭호(self designation)로(김경진, 2003: 102) 유대 문화적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그 칭호가 유대 문화적 상황을 벗어나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서구인들에게 '인자'라는 칭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히브리 사회에서 장남은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지니는데, 서구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상하의 위계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격차로, 서구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월한 아버지와 종속적인 아들의 관계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인자'라는 말을 서구인들에게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어로 대체되어야 한다(Kraft, 1979: 494). 이는 서구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상하의 위계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예이다.

끝으로, 문화는 복음의 그림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때문에 문화는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모우리어(Maurier)는 이교신앙(Paganism)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출발점(Maurier, 1968)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교신앙은 기독교 복음의 그림자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소유한 지식에 기초하여 그들을 자극하시며 믿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교신앙의 문화적 배경 안에 있던 사람이 참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다.[1] 따라서 우리는 이교의 문화적 상황이 복음의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2]

---

1) 몇 명을 들면 멜기세덱(창 14:18), 이드로(출 2), 욥, 그리고 나아만(왕하 5) 등이다.

2)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지금까지의 검토를 정리하면, 문화가 1) 복음에 적대적일 수 있으며, 2)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지만, 3) 문화가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듯 문화가 선포된 복음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선포할 때 문화에 다층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암시받는다. 특히 우리는 앞서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서 좋은 선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바울은 세상의 문화에 대하여 열린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한편, 교회와 세상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긋고 복음을 예민하게 관찰하는 가운데, 복음이 문화에 의하여 변질될 징후가 보이면 신속하게 변증을 시도하여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것은 현대의 복음 전파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문화의 가장 기본적 요소는 언어인 바, 언어와 문화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기록된 메시지를 문화에 적합한 언어와 개념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 선포자는 언어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2. 복음이 문화에 미친 영향

다음으로 복음이 주변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문화적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표현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초문화적 이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인간 문화 속에서, 문화와 함께 일하신다. 그 단적인 예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늘의 풍성한 복음이 흩어져 있는 민족들의 각 언어로 소통되고 교환된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각 사람의 난 곳 방언"(행 2:8), 즉 각 민족들이 갖고 있는 언어문화로 전달된다. 또 신약성경에 복음을 묘사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도 복음 선포자들이 복음을 듣는 사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구원이 가능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람들의 문화적 상황에 맞추어 복음을 제시하였음을 반영해 주는 좋은 예이다.[3] 이상의 예를 통해, 우리는 복음이 특별한 문화형식으로만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창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음은 특정한 문화적 상황에 적합하게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는 히브리식(행 10:15)으로 반응하였으며, 몇 가지를 제외(갈2:11-14)하고는 히브리식으로 생활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문화적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다.[4] 그 후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깨닫지 못하는 멍에를"(행 15:10) 이방인들에게 메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밝힌다. 이 말을 들은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이러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으로, 이방인들은 자신의 문화 양식을 바꿀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당시에 아주 파격적인 것이다. 구약의 정신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관념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부정한(unclean) 존재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후에 그리스도인은 할례나 유대교 절기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자신들의 문화적인 양식에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윤리의 영역에서도 나타나는 바, 바울은 폭음과 음란 및 기타 일반적 비행들과 같은 구습(old way of life)을 좇지 말 것을 권고하였고, 실제로 부도덕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하지만 기독교가 제시하는 도덕률은 특정한 문화의 어떤 이상들과 현저하게 다른 생활 방식을 요구하지 않았다. 여

3) 복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제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행 10:36), "십자가의 도"(고전 1:18),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행 4:33), "그리스도의 복음"(롬 15:19), "하나님 나라의 복음"(마 24:14) 등이다(Padilla, 1997: 85).

4)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어,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유대문화의 형식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형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깨우쳐주셨다(행 10:35).

기서 우리는 도덕적 이상을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양심에 기초한 도덕적 교훈을 인간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못했을 때, 인간은 양심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다시 말하면 양심에 기초한 도덕적 교훈은 그리스인, 로마인, 중국인, 인도인 등 모두 비슷할 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도덕과도 비슷하다(Nicholi, 2003: 85). 하지만 그 법칙에 대해 느끼는 정도나 한 문화 또는 개인이 그 법칙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롬 2:15-16).

바울은 아디아포라(adiaphora, 영어로는 nodifference) 문제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이 도덕적 원칙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법칙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신학적으로 제시한다. '아디아포라'는 성경에 금하거나 명령하지 않는 어떤 의식적인 행사를 신자 개인의 양심에 맡긴다는 것으로, 즉 우상의 음식을 가려 먹든지 먹지 않든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박윤선, 1981: 373). 이것은 우상이란 단지 목석에 불과하다는 사도 바울의 생각에 기인한 것인 바, 이 사실을 이해하는 자들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디아포라 문제가 자율주의가 아니라는 바울의 견해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바울은 지식이 있는 강한 자들에게 문화적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옳은 것인지를 한번 숙고해 보라고 가르치고 있다. 즉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화적 표현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연약한 양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자유를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런 즉 그리스도인은 문화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웃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 문화적 표현을 자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김세윤, 2007: 147-256)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문화를 표현하는 데 조심해야 한다(고전 10:31).

이상을 통해, 우리는 복음 선포자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추어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복음은 특정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의미를 비판하여 교정시키는 힘, 문화변혁의 능력을 가졌다. 주님은 특정한 문화가 갖고 있는 문화적 이상과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이 상충할 때, 그 문화의 특정한 측면들의 문화적 기능을 비판하여 그 의미를 변화시키셨고, 이를 통해 인간 사회를 변혁시키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1세기 히브리인의 문화관을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주변인물을 통해 추출할 수 있다.

① 유대인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을 냉대할 권리가 있다.
② 물질적인 번영과 사회적 지위는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이다.
③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영예로운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다.
④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로마를 무력으로 전복하는 일이 포함된다.
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보다 가정에 대한 성실성이 앞선다(Kraft, 1992: 174).

예수님께서는 위의 다섯 가지 당대의 문화적 환경을 비판하셨다. 다섯 가지 관점을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살펴보면, 현재 우리의 잘못된 문화체계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먼저 ①번의 관점을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살펴보자. 예수님은 사심 없는 이웃사랑의 예로서 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으며,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인 뿐 이라고 말씀하셨다(눅 17:17). 그 결과 원시 공동체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으나 곧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생겨난 분열을 극복한다. ②번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를 축적하는 것은 비참한 오산 또는 영원한 고통의 근거라고 말씀하셨다(눅 6:19-31).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행복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물질을 재분배하라고 가르치셨다.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앞 장에서 보듯 관대한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③번에 대해서, 예수님은 섬김의 문화가 기독교의 독특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다. ④번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정치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셨다. ⑤번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족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벧전 1:4), 즉 천국 보화를 얻기 위하여 일하라고 가르치시며, "하늘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며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눅 18:29-30)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문화적 관습을 말씀으로 변용시키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문화를 변용시킬 때, 문화형식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의 동기에 나타난 기능, 의미, 해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청자들의 문화적 기능을 신중히 고려해서 치밀하게 사용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문화 활용 역량을 단연 돋보이게 한다. 예수님께서 어떤 문화의 표현을 거부하거나 또는 긍정하실 때에는, 특정 문화 요소의 사용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대처하셨다. 이것은 복음을 전달해서 문화를 변용시킬 때, 특정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문화를 변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숙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침 역할을 한다.

셋째, 구약의 계시는 결코 변할 수 없지만, 위대한 문화의 규범자로서 예수님은(Vantil, 1984: 321) 문화의 형태를 한 단계 더 진보시켰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셨고 그 권위를 인정하셨지만, 자신의 말씀을 장로들의 규례나 모세의 율법보다 높이 세우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히브리인들에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레 24:20)라는 문화적 원리를 허용하

셨고 승인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수를 단념하라고 요구하시어[5] 한 단계 높은 새 언약을 제시하셨다. 이와 같은 새 언약의 말씀은 더 큰 도덕적 명료함을 가져오며, 사랑의 의미를 명확하게 예증하고, 순종에 대한 더 큰 개인적 의무를 준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내적 의도를 해설하시면서 율법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서 더 큰 의를 요구하신다(Hays, 2002: 162-163) 그 결과 새 언약은 영광과 능력 면에서 현저히 옛 언약을 능가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구약의 언약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흔히 예수님에 의해 제정된 새 언약의 경우, 구약의 율법을 수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비이성적인 생각이다. 계시는 하나님의 불변적인 도덕적 특성을 반영하여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억지가 아닌가 하고 반문하고 싶을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 재료를 변형시켜 옷을 바꾸시는 것(시 102:25-26)처럼 문화를 새롭게 변용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Jordan, 2002: 273). 바로 이러한 문화변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를 정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기보다는 변화하고 있는 맥락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을 해석할 때, 너무 정적이고 고정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Storkey, 1996: 177). 이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넷째, 복음이 이교도의 문화에 적극적으로 맞선 경우들이 있었다.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는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문화적 연대(cultural solidarity)의 상징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공격을 가하기 시작할 때 분쟁이 발생한다. 복음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소 개념의 허구성과 제의 개념의 허구성, 사제 개념의 허구성을 공격하자

5) 크래프트는 계시가 변한 것을 성경의 문화상대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필자는 그 개념보다는 문화변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다. 또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숭배를 거부하자 그들을 박해하였다. 사실 기독교와 이교도들의 생활양식은 편하게 공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정 집단의 문화적 상징물에 도전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의 뛰어난 도덕성이 이교도들의 양심을 불안하게 자극하였을 때 박해가 일어났다.

다섯째, 신약성경은 문화에 대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복음이 세상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다.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은 신약 시대의 후기에 속하는 것으로서 배경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아주 유사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6] 주변 세계를 정반대의 태도로 다루고 있다.[7] 두 성경에서 드러나듯, 신약성경은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하여 정반대의 상황을 묘사하지만(Legrand, 2000: 162-165)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문화 전쟁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① 진리는 거짓보다 강하고, 빛은 어둠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②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지만, 사단은 자기의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싸울 뿐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사랑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 ③ 예수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

6)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과 우상숭배의 문제(계 2:14, 20-21; 행 15:20, 29, 21:25), 유대인 동료와의 관계 문제(계 2:9, 3:9; 행 28:26-28), 내적 싸움(계 2:6, 14, 20;행 20:30), 박해(계 2:3, 3:4, 8; 행14:5, 16:20-24, 17:6-7, 20:29) 들이다.

7)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심판 받을 문명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한다. 요한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사탄의 회(2:9)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혹독한 비판을 받는다. 로마제국은 사탄의 앞잡이요, 지옥에서 올라온 짐승(13:1-10)이며, 이들은 종교집단의 위선과 거짓된 경건으로 더욱 극악해진다(13:1-17). 반면에 누가에게 있어서 박해는 복음을 전파할 기회(사도행전 6:7, 7:17, 8:2, 5-25)가 되고, 기쁨(5:41)과 찬양 및 감사(4:24-30)의 조건이 된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세계 역사의 전 과정이 전쟁(6:4), 기근(6:5-6), 재앙(6:8)의 기록으로 되어 있고, "하늘에는 기쁨이, 땅과 바다는 화(12:12)"가 있다. 반면에 누가는 "땅에는 평화"(2:14)라고 노래하고 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그 무기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그 가슴의 심장은 아가페로, 아가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신자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화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속성을 갖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

이상 다섯 가지를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복음은 문화적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표현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복음은 유대교의 라이프스타일에 강력한 도전을 주었고, 다원주의 사회인 이교도의 사회·정치적 질서를 변화시키는 새 촉매제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다수의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와서 대안공동체를 형성하여 세계를 변혁시켰던 초대교회의 극적 상황을 보면, 복음이 가진 문화변혁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복음이 궁극적으로 세상의 문화에 승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신약성경은 복음이 문화적 저항에 직면하여 순교하기도 하는 심각한 상황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Ⅲ. 문화적 가치에 대한 신약성경의 태도

20세기 후반을 지나 21세기에 이르면서 신학자들 사이에 문화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Lynch, 2005: 21). 특히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그것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신약성경은 문화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신약성경에서 문화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세상'(Cosmos)인데, 빠딜라는 세상이란 용

어를 구원론과 관계 지을 때(Padilla, 1997: 16), 우주적 차원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요(요1 2:15-17),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이다(요 3:16-18). 신약성경에서 '세상'은 어둠의 노예가 된 부정적인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복음의 대상으로서의 세상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송인규, 2001: 16-19). 분명히 말하여 세상의 의미가 두 가지로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문화도 두 가지 대립적인 의미로 되어 있음을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즉 문화는 하나님께서 수용하기도 하시지만, 문화를 심판하기도 하신다는 것이다(Newbigin, 2007: 360).

신약성경에서 교회가 헬레니즘 문화에 맞서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교회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다"(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in과 of가 의미하는 것이다. "in the world"는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여전히 많이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비 그리스도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면서(고전 5:10) 세상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당분간 우리를 이 땅에 두기로 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of the world"가 되지 않도록 경고를 받고 있다. "not of the world"는 죄에 의해 지배되고, 그리스도의 속죄 밖에 있는 행동과 믿음의 총체인 "world system"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창조물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에 현재 존재하는 죄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도전을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만든 문화적 생산물의 영향권 아래 놓이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잘 선용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인 원자재를 어느 것이나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것을 전리품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질책해서는 안 된다. 우상에게 제공되었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바울이 가르친 요지가 이것을 확인시켜 준다(고전 8:4, 10:25). 비록 음식이 이교도에 의해 준비가 되었다고 해도, 자유로운 양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다. 또 하나의 원리를 들라고 하면, 우리는 성전 건축에서 비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할 목재와 돌을 준비하였고(대하 2:8-10, 18), 이스라엘 기능공들이 마무리하였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기준에 따라(고전 2:15, 데전 5:21)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만든 문화상품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메시지 내용과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조심스럽게 평가해야 한다. 세상의 물건들은 그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에게 유혹이 되었듯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신 7:16, 12:30).

셋째, 일반적으로 개혁파의 신학자들이 인간의 문화적 책임을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이라고 부르는데(Webber, 1989: 34), 전적 타락이 문화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문화 명령을 성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창 1:28).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며,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벧후 3:13)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에서 문화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문화적 책임에 관하여 신약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기업을 받기 위해서 구속받았고(엡 1:5) 구속하신 목적을 두 계열로 파악하였다. 하나는 기업(약속된 유산)이 땅과 관계되고(엡 6:2-3) 다른 하나는 '선한 일'(good works)과 관련된다(엡 2:10). 그렇다면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문화적인 일도 포함된다. 신자들은 문화적인 일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자연에서 배울 수 있으며(Vantil, 1984: 237), 초문화적 진리로 특정 문화의 세계관에 영향을 끼쳐 문화변혁을 시도해

야 한다(롬 12:2). 이와 같이 인간은 문화 변혁의 참여 과정에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변혁적으로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마 5:12).

궁극적으로 신약성경은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문화, 즉 죄로 오염된 문화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신약성경에 세상을 악한 것으로 보고(요일 5:19) 그 흐름에 합류하지 않기를 강하게 권한다.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강하게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세상을 정죄한 것은 그 문화가 죄에 의해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수 없는 자못 특별한 때였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간은 창조주가 자신의 창조 세계를 기뻐하고 인정한 것에 근거하여 전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 샬롬의 문화를 선포해야 하며(신국원, 2005: 342),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겨야 한다(요일 5:4).

신약성경이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의 말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말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24)…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26).

위의 인용 구절에서 요한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라고 하여 새로운 예루살렘에 들어 갈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갈 '영광과 존귀'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헤게만은 "영광과 존귀(glory and honor)"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여기에서 사용된 그리스 단어 doxe(NKJV에서는 "glory", NIV에

> 서는 "splendor")와 time(honor)은 신약에서 널리 사용되는데, 고결한 가치나 아름다움을 가진 실제 물질적인 물체를 지칭할 때 doxe를 자주 사용하고, time은 귀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Hegeman, 1999: 86).

헤게만이 언급한 것처럼 '영광과 존귀'가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을 지칭한다고 할 때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인간이 만든 문화적 창조물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가져갈 것이 성스러운 것임이 틀림없다(계 21:27).

헤게만의 주장처럼 시온(Zion) 성 안에 인간이 만든 실질적이며 물리적인 인공물이 들어간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을 이사야 60장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이사야 60장에서 미리 예견한 "City of the Lord"/ "Zion"의 비전을 보면, 두 도시는 문이 절대로 닫혀 있지 않고(사 60:11;계 21:25), 여호와가 빛의 근원이시며(사 60:19-20;계 21:23). 인간의 고통이 완전히 없음을 경축하고(사 60:18;계 21:4), 하나님의 신성한 불빛 아래 서 있으며(사 60:1-3;계 21:24), 지상의 나라로부터 물건들을 수확한다. 시온으로 인도될 보물은 금, 은, 다른 귀한 물건들(6, 9, 17), 가축과 낙타(6-7), 호화로운 건축 재료(13)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이 "영광과 존귀"(glory and honor)가 될 것이다(Hegeman, 1999: 88-89).

헤게만이 검토한 바를 인정한다면, 구속받은 성도들의 문화생산물 가운데 뛰어난 것들이 새 예루살렘을 꾸미게 될 것인 바[8] 그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일인가(계 14:13)?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문화적인

8) 박윤선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우주의 구 재료들을 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세계는 옛 세계 실체의 연속성이면서도 딴 종류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 같은 책 378면에서 헤르만 바빙크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즉 새 예루살렘에는 "천상과 지상의 모든 피조물 중, 무엇이든지 참된 것, 귀중한 것, 옳은 것, 깨끗한 것, 사랑스러운 것, 조화로운 것이 혁신되고 개조되고 또 최고의 영광을 입어 가지고 내세에 나타난다."(박윤선, 1981: 348.)

소명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이 파괴될 것이라는 비극적 결론을 내려 인간의 문화적 노력을 무가치하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하는 일과 우리가 보게 될 장래의 영광 사이에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면[9], 이것은 문화 창작 작업에 대한 심오한 희망과 동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문화적인 일들이 '영원히' 중요한 것이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더한다면 우리의 문화적인 일은 영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구속받은 성도들의 예술작품, 시, 학문적 이론 중 최고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기여하리라는 사실이다.

만약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인간의 문화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인간 문화 전체가 파괴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면 문화적인 일들이 궁극적이고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게 되어 그것을 추구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미적인 가치에 대한 신약성경의 태도가 긍정적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작품 가운데 최상의 것을 기쁨으로 열납하실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Ⅳ. 결론

이상 신약성경에 나타난 복음과 문화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를 검토하여 문화가 선포된 복음의 형태에 끼친 영향을 밝혔고, 복음이 문화에 미친 영향을

9) 연속성의 문제에 대해서 헤게만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불이 획 지나감이란 가치 없는 것을 파괴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그 단서를 출애굽기 40장 34-38절에 나오는 '소멸하는 불'이 장막과 그 장비를 파괴하지 않고 정화시키고(고전 3:13-15)에서 찾고 있다(Hegeman, 1999: 91).

조명하였다. 이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신약성경의 태도에 대하여 천착하였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성 사역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복음과 문화의 해석과 그 적용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제 이를 따로 요약하는 과정은 생략하기로 한다.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논할 때, 먼저 인류에 두 가지 중요한 역사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구속의 역사와 문화의 역사이다 (Hegeman, 1999:29). 신약성경의 문맥에서 보면, 인류 역사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 구속의 역사와 문화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의해 분명해진다. 구속 역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으며, 문화의 역사도 그분의 말씀으로 뚜렷한 방향과 목적을 갖게 되었다. 두 역사는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구속의 역사가 받아들여지는 곳에 문화 변혁의 역사도 병렬적으로 진행되어 하나님 나라의 실재인 샬롬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지닌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구속의 역사와 더불어 문화의 역사가 함께 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 멈추지 않고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변혁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과제는 한국 사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과 문화가 어떤 교섭양상을 보였는지까지 살펴,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또 복음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된 것에 대한 신학적 검토,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복음으로 변혁시키지 못하고 있는 한계와 그것의 극복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진 (2003), 『하나님 나라와 윤리,』 그리심.
김성태 (2000), 『선교와 문화,』 이레서원.
_____(1997), "교회지도력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선교신학적 고찰" 신학지남사.
김세윤 (2007), 『고린도전서 강해,』 두란노 아카데미.
김의환 (1997), "교회 내 여성사역의 제한성과 중요성," 『신학지남,』 신학지남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편(1991), 『예수 그리스도와 문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문용식 (2005), 『그리스도인을 위한 문화 이해,』 예영커뮤니케이션.
_____(2004, 겨울호), "구약에 나타난 문화적 특질.", 『신학지남,』 신학지남사.
_____(2007), "문화전쟁의 측면에서 본 성화와 변화," 『기독교와 어문학,』 제4권 1호, 한국기독교 어문학회.
박윤선 (1981), 『성경주석 요한계시록,』 영음사.
박희석 (2002), 『안식일과 주일,』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송인규 (2001),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IVP.
신국원 (2002), 『문화전쟁 시대의 기독교 문화전략,』 IVP.
_____(2005), 『변혁과 샬롬의 대중문화론,』 IVP.
신충훈 (2007), "유다복음과 영지주의에 관한 언어 문체적 특성 비판," 『기독교와 어문학,』 제4권 1호.
이승구 (2005),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SFC.
Bell, A. A. (1998), *Exploring the New Testament World*,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오광만 역(2005), 『신약시대의 사회와 문화,』 생명의 말씀사.
Nicholi, A. M. (2002), *The Question of God*, 홍승기 역(2004), 『루이스&프로이트,』 홍성사.
Kraft, C. H. (1979), *Christianity in Culture*, New York, Orbis Books, 임윤택·김석환 역(2006), 『기독교와 문화,』 CLC.
_____(1989), *Christianity with Power*, Ann Arbor, Michigan, Servant Publications, Vine Books, 이재범 역(1992), 『능력 그리스도교,』 나단.
Henry R. Vantil(1974,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Presbyterian and Reformed, 이근삼 역(1984), 『칼빈주의 문화관,』 성암사.

Boice, J. (1978),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MI : Zondervan Publishing Co, 서문강 역(1995), 『주석적 요한복음 강해 II,』,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Jordan, J. B. (1988), *Through New Eyes: Developing a Biblical View of the World*, Niceville, Florida, Biblical Horizons, 이동수·정연해 역(2002), 『새로운 시각으로 본 성경적 세계관,』 로고스.

Beker, C. J. (1980), *Paul the Apostle-The Triumph of God in Life and Though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장상 역(2004), 『사도 바울 : 바울의 생애와 사상에서의 하나님의 승리,』 한국신학연구소.

Vos, J. G. (1948),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이승구 (1985), 『성경신학,』 기독교문서선교회.

Newbigin, L. (1989),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Eerdmans Publishinf Co, 홍병룡 역(2007),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IVP.

Hiebert, P. G. (1993),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채은수 역, 『문화 속의 선교,』 총신대출판부.

Hays, R. B.(1996),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harperCollins Pulishers Inc, 유승원 역(2002), 『신약의 윤리적 비전,』 IVP.

Lakin, W. J. (1988), *Culture and Biblical Hermeneutics*, Grand Rapids MI USA, Baker Book House Company(2000), 정득실 역, 문화와 성경해석학, 생명의 말씀사.

Hegeman, D. B. (1999), *Plowing in Hope*, Moscow, Idaho, Canon Press.

McGavran, D. (1974), *The Clash Between Christianity & Cultures*, Washington, D. C, Canon Press.

Lynch, G. (2005), *Understanding Theology and Popular Culture*, Malden MA, Blackweel Publishing,

Marshall, H. (1991), *Gospel & Culture-Culture and the New Testament*-William Larey Library.

Drane, J. (2000), *Cultural Change and Biblical Faith*, Waynesboro, Paternoster Press.

Sanders, K. O. (1993), *"Paul and Socrates: The Aim of Paul's Areopagus speechs"*, JSNT 50.

Legrand, L. (2001), *The Bible on Culture*, New York, Orbis Books.

Maurier, H.(1968), *The Other Covenant: A Theology of Paganism*, New York, Newman Press.

Abstract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Gospel and Culture in New Testament

Yoeng Sik Moon(Chongshin Univerity)

This study is a research to establish what correlations are there between Gospel and culture in New Testament. This study is to clarify culture's influences on declared Gospel's form and Gospel's influences on culture based on the New Testament, followed by inquiry on New Testament's attitude on cultural value, and study on modern culture and revelation's issue of application in biblical theory.

As the results of the study, it could be found that influence of culture on declare Gospel was great, and on the contrary, Gospel has given a great challenge to culture. When Gospel and culture combined, Cultural Revolution occasionally occurred as Gospel gave a great challenge to culture, but on the other hand, syncretism persecuting, leaving out, or adding Gospel was occasionally shown. When syncretism appeared, apostles call upon believers with strong theological reflection, and in its core is to accept nature, history and human as the objects of God's new creation by extending Jesus Christ, who was crucified, then resurrected as a universal ruler. It is such a relationship between Gospel

and culture where attitudes on cultural value appeared. In other words, New Testament contains history of restraint and history of culture, and as history of culture is connected to God's goal on humanity, it grants profound motives to culture creation works of Christians.

The most difficult issue in relationship between Gospel and cultur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revelation and culture. It is because this differs according to the viewpoint of researcher's biblical view. We, on the basis of inspiration and inerrancy of the Bible's authors, should deal culture from the viewpoint that the Bible, recorded with Helah and Hebrew, has presented eternal truth to mankind of all regions and cultures.

Keywords : New Testmant, Gospel, Culture, Revelation, Culturative History, Biblical Inerrancy, Syncretism, Cultural Transformation, New Creation